

(일)고분자과학 공적상 수상자 유 혁교수



한국고분자학회 종신회원인 유 혁교수가 지난 5월 교토에서 열린 일본고분자학회에서 고분자과학 공적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전세계적으로 고분자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에게 시상되며 외국인으로는 R. S. Stein, E. W. Fisher, F. A. Bovey, H. Ringsdorf, R. W. Lenz, G. Wegner 등이 수상하였다. 유교수의 수상업적은 “Dynamics of Polymer Solutions and Interfaces”이며 유교수는 30여년간의 연구활동기간 동안 일관되게 고분자물질의 물성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공헌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미국물리학회의 고분자물리상, 1997년에는 호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교수는 왕성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Gordon Research Conference, ACS Symposium 등을 여러 차례 주관하였으며 교육자로서도 많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한국과 일본에도 유교수 지도하에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동연구자로 연구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한 NBS, Eastman Kodak, Tennessee Eastman, KIST, 화학연구소, 한화그룹연구소, LG화학연구소, 금호석유연구소, 일본합성고무 등에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자주 방문하여 초청강연 등을 통하여 한일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한편, 한·미·일간의 과학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유교수는 1955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USC에서 유기화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Princeton대 화학과에서 고 Tobolsky교수의 지도하에 1962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뒤 1년간 Dartmouth대의 Stockmayer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거친 후, 4년 정도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서 근무하다가 1967년 Wisconsin대학교 화학과에 부임하여 현재 석좌교수(Walter H. Stockmayer professor, Eastman Kodak professor)로 재직하고 있다.